



아시아컵 대만전을 앞두고 6일 소집된 축구국가대표팀 박주영이 파주 NFC 트레이닝 센터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거꾸로 나는 오토바이

짐 맥네일이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X게임대회 오토 X 자유형 예선에서 멋진 묘기를 연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1기 베어백호 주전경쟁 돌입

'1기 베어백호' 태극전사들이 뜨거운 땀을 흘리며 2007 아시아컵 예선 대만 원정에 나설 20명의 최종 엔트리에 들기 위한 본격적인 주전 경쟁을 시작했다.

김 베어백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6일 낮 12시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처음 모여 오는 16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치러질 대만과 2007 아시아컵 예선전을 대비한 소집 훈련을 시작했다.

이날 소집에는 베어백 감독이 발표한 36명의 선수 가운데 일본 도쿄에서 벌어지고 있는 A3 챔피언스컵 대회에 참가 중인 울산 현대 소속 이천수, 최성국, 이종민을 비롯해 김동진, 이호(이상 제니트), 조재진(시미즈), 김진규(이와타) 등 7명이 빠진 29명이 참가했다.

#### 아시아컵 예선전 대비 소집훈련

#### 이천수·이호 등 빠진 29명 참가

베어백 감독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압신 고트비 및 홍병보 코치, 코사 골키퍼 코치 등과 함께 파주NFC에 도착해 소집 첫날 훈련에 대한 준비에 들어갔다.

베어백 감독은 특히 대표 선수들이 훈련구역을 표시하는 등 기존 대표팀 사령탑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선수로서는 '짧은 수비수' 조용형(제주)이 코칭스태프보다 5분 빠른 오전 10시에 파주NFC에 도착, 본격적인 대표팀 세대교체를 앞두고 주전경쟁에 대한 남다른 심정을 내비쳤다.

이후 선수들은 오전 11시께부터 차레로 도착해 오전 11시 45분 박주영(FC서울)을 끝으로 29명의 선수들이 모두 입소를 마쳤다.

이날 소집에서 취재진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끈 선수는 팀 이적에 추진하고 있는 안정환(위스부르크), 평소 치렁치렁했던 긴 머리를 짧게 자른 깔끔한 헤어스타일로 파주NFC에 모습을 드러낸 안정환은 "아직 이적과정이 진행중이라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에이전트를 통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 유럽파 축구 3인방 맹활약

## 설기현, 레딩 이적 후 4호골

스웨덴 란나와 친선 경기서

20m 통쾌한 장거리슛 성공

총 7경기 출전, 4골 3도움

을 주전자리 확실히 굳혀

한국 선수 프리미어리그 3호 설기현(27)이 또 득점포를 가동하며 레딩FC 이적 후 4호골을 성공시켰다.

설기현은 5일 밤(한국시간) 열린 스웨덴 란나와 원정 친선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전반 26분 팀의 세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후반 15분 사이먼 폭스 대신 교체되며 60분간 활약한 설기현은 교체 직전 다섯 번째 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러시아 디야몬트전에서 레딩 이적 데뷔골을 터트린 뒤 27일 FC밀월과 경기에서 2호골, 지난 4일 갈스타스 FK와 경기에서 3호골을 넣었던 설기현은 이날 4호골까지 성공시키며 2006~2007 주전 자리를 거의 굳혔다.

이로써 설기현은 레딩 이적 후 출전한 7차례 평가전에서 4골 3도움의 빼어난 성적을 기록했다.

설기현은 2-0으로 앞선 전반 26분 미드필드 오른쪽에서 돌파하다 20여m짜리 원발 중거리 슈팅으로 골문을 갈았다. 설기현의 이날 중거리포는 3호골을 터트릴 당시와 비슷했는데 레딩FC 홈페이지는 설기현의 슈팅을 '로켓포'로 표현하기도 했다.

레딩FC는 설기현의 골을 비롯해 레오 이리타의 헤트트릭 등을 묶어 10-1로 크게 이겼다.

레딩FC는 2006~2007 시즌을 앞두고 치른 8차례 평가전에서 7승1무의 성적을 거뒀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가운데)이 6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LG 암스테르담컵 토너먼트 2차전 아약스전에서 상대 골문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지성 이틀 연속 출격 이영표 우측 윙백 출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박지성(25)이 이틀 연속 선발 출전하며 지지 않는 체력을 과시했다.

박지성은 6일 오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LG 암스테르담컵 토너먼트 2차전 아약스와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전반 17분 폴 스톨레리와 교체될 때까지 62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이영표는 하지만 지난 시즌 자신의 주 포지션이던 왼쪽 윙백 대신 오른쪽 윙백을 맡았다.

왼쪽에는 여를 새로 이적해 온 카메룬 출신 베누아 아수 에코토가 나서 향후 이영표와 치열한 주전 경쟁을 예고했다.

토트넘은 오는 12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소시에다드와 마지막 평가전을 가진 뒤 20일 볼턴 원더러스와 2006~2007 시즌 정규리그 첫 경기를 치른다.

'조룡이' 이영표(29·토트넘 핫스피)가 독일월드컵축구 소속팀 1군 평가전에 처음으로 선발 출전해 2006~2007 시즌 주전 경쟁을 시작했다.

이영표는 5일 밤(이하 한국시간) 열린 독일 분데스리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친선 원정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후반 17분 폴 스톨레리와 교체될 때까지 62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이영표는 하지만 지난 시즌 자신의 주 포지션이던 왼쪽 윙백 대신 오른쪽 윙백을 맡았다.

왼쪽에는 여를 새로 이적해 온 카메룬 출신 베누아 아수 에코토가 나서 향후 이영표와 치열한 주전 경쟁을 예고했다.

토트넘은 오는 12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소시에다드와 마지막 평가전을 가진 뒤 20일 볼턴 원더러스와 2006~2007 시즌 정규리그 첫 경기를 치른다.

## 우즈 통산 50승 눈앞

PGA 뷰익오픈 3R 단독 선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사잔)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뷰익오픈 3라운드에서 단독 선두로 나서며 통산 50승 달성 눈앞에 두었다.

우즈는 6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블랭크의 위익골프장(파72·7천127야드)에서 전날 악천후 때문에 마치지 못했던 2라운드 3개홀과 3라운드 18개홀을 함께 치러야 했지만 6타를 줄이며 중간 합계 18언더파 198타를 쳐 2위 그룹 무카스 글로버(미국), 스티브 버클랜드(미국), 로버트 엘런비(호주)를 2타차로 따돌렸다.

우즈는 1타차 이상 앞선 상태로 최종 라운드로 나갔을 때 20전 20승의 100% 승률을 자랑하고 있다.

우즈는 2라운드 16번홀(파5)과 3라운드 2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하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우즈는 2라운드 16번홀에서 티샷이 아웃 오브바운즈가 돼 버렸고 자신조차 "최근 몇 년간 긴 것 중에 최악이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즈는 3라운드 2번홀에서도 보기를 한 이후 버디 7개를 쓸어 담으며 단숨에 선두 자리를 꿰찼다.



특히 우즈는 18번홀(파4)에서 친 티샷이 왼쪽으로 치우쳤지만 갤러리를 맞고 페어웨이로 나오는 행운을 잡기도 했다. 우즈는 그 갤러리에 직접 사인한 장갑을 주었고 버디로 마무리하며 행운을 지켰다.

이 대회 3년 연속 우승과 통산 4번째 우승을 노리는 비제이 싱(피지)은 보기없이 버디 4개로 4타를 줄여 중간합계 15언더파 201타로 공동 5위에 포진, 우승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한국남자들 "어! 안맞네"

톱10 진입 한명도 없어

LPGA 브리티시오픈 3R

44세의 노장 세리 스테인하워(미국)가 브리티시여자오픈골프대회 3라운드에서 선두로 치고 나갔다.

스테인하워는 6일(한국시간) 영국 블랙풀의 로열 리덤 앤드 세인트 앤스 골프링크스(파72·6천463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경기에서 이글 1개와 버디 4개로 6타를 줄이는 맹타를 휘둘러 중간 합계 7언더파 209타로 리더보드 맨 꼭대기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 놓았다.

메이저대회 최고령 우승에 도전하는 46세의 줄리 잉스터(미국)는 중간 합계 4언더파

212타를 쳐 전날 선두 자리를 내줬다.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는 잉스터와 소피 구스타프손(스웨덴), 카렌 스타플스(잉글랜드)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라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

양영아(28)가 4언더파 68타를 쳐 중간합계 1언더파 215타로 재미교포 김초롱(22) 등과 공동 12위에 올라 톱10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안시현(22)은 1오버파 217타로 공동 21위, 이지영(21·이마트)과 정일미(33·가골프)는 2오버파 218타로 공동 23위를 차지했다.

위성미(17·이키골프)는 버디 3개를 보기 3개와 맞바꾸며 타수를 줄이지 못해 4오버파 220타로 공동 32위로 처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